

한일역사공동연구회 & 한국순교지투어

복음에 의한 화해위원회 히라노 신지목

사

1. 한일역사공동연구회(5월18~19일)

이번(2회째)에는 서울신학대학에서 개최되어 일본측으로부터 6명의 교직자와 신도가 참가하고 한국측에서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총무인 송윤기목사와 서울신학대학교역사연구소의 박명수 소장 이하 교수, 근처교회의 목사, 대학원생 등이 출석하였습니다. 필자(일본홀리네스교단 전사-前史), 웨슬레안홀리네스교단의 혼마 요시노부목사(제2차세계대전후의 홀리네스 신앙의 심화), 아시다 미치오목사(나카다 주지의 홀리네스신앙), 박문수교수(한국성결교회의 교회론적 특징), 하도균교수(초기 한국성결교회의 전도활동), 강준자전도사(성결교회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성결론 고찰)가 발표하고 특히 설립기의 미국성결운동과의 관계에 관해서 질의응답이 행해졌습니다.



지난 번은 한국측의 높은 학문적 레벨이나 연구자층이 두꺼운 것으로 인해 압도되었던 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은 서로의 교단이 같은 과제를 갖고 있으며

금후의 이 분야에 있어서 대등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구회의 명칭을 「한일성결교회역사공동연구회」로 하고 다음 번은 내년 여름에 일본에서 개최할 것을 약속하고 폐회하였습니다.

2. 한국 순교지 투어(5월20~22일)

순교지 투어에서는 ①1924년에 57명의 아동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강경성결교회를 방문하고 강경교회 목사로부터 「일제 한국지배에 있어서의 종교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②1950년 한국동란 때 성결교회의 문준경전도사와 그 녀에게 인도함 받은 다수의 성도들이 순교한 증도에서 개척된 교회중에 세 교회와 순교기념비 현재 계획중인 순교기념관을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증도는기독교인 인구비율이 90%로 한국에서 가장 높아서 「천국의 섬」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 삼일운동의 유관순열사기념관 ④독립기념관 ⑤한국기독교 선교 백주년기념교회와 외국인묘지 ⑥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통역과 한국측과의 교섭을 해주신 소기호목사와 투어 안내를 해주신 「천국의 섬」 저자 임병진 목사에게 감사 드립니다



니다.
계

중도의 촌장님(앞줄 좌측 세번째)과 함